

2022-05-02 (2022-17호)

5월 02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연준 회의 선반영 충분했을까... “1,300원 향한 상승 vs 빠른 차익실현”

서울, 5월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반영하며 강세 일변도 흐름을 보였던 달러는 이번 주 연준 정책회의 결과 따라 기존 추세 강화나 차익 실현 등 큰 변동성 장세 속에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달러/원도 이러한 대외 여건에 휘둘리며 양방향 진폭을 대거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40-1,285원이다.

지난주 달러/원은 통상 수준의 변동성을 넘어서는 급등락을 이미 경험했다. 외환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인 1,274원 선으로 일방적으로 오르다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추락하는 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현재 시장은 변동성에 크게 취약해져 있다.

이런 가운데 금주는 국제 금융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지을 연준 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시장이 서둘러 반영하면서 달러는 강세 탄성을 키웠고, 이에 달러/원도 연일 연고점을 경신해왔다.

그렇다 보니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연준 회의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연준 긴축 우려가 더 증폭되기보다는 연준과 시장의 보폭이 맞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엿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고물가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준이 뒤늦은 물가 대응을 만회하기 위한 물가 파이터로서 신속한 금리 인상 스탠스를 더 강하게 시사할 경우 시장 심리가 얼어붙을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래저래 달러/원은 연준 회의를 전후해 양방향 변동성 위험에 제대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4월 제조업 지표를 비롯한 고용지표 등 핵심 경제지표도 챙겨봐야 할 변수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중앙은행 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긴축 기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관련 불확실성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틈틈이 시장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한 주요 도시 봉쇄조치 등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도 여전하다.

중국의 4월 제조업 PMI는 47.4로 26개월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중국이 주초 노동절 연휴로

휴장해 중국 금융시장 불안 전이로 원화가 마냥 흔들릴 여지는 줄었지만, 역외 위안 움직임이 원화 변동성을 얼마든지 자극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챙겨볼 지표가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자료에서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추세가 재차 확인될 전망이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4%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4월 외환보유액도 발표된다. 달러/원 급등에 따른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달러 매도 개입이 추정된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폭 수준은 챙길 필요가 있겠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해외 일정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5월2-11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4월		USD	1,356.1B
5월2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치	4월		Index (diffusion)	53.4
5월2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4월		Indicator	1.67
5월2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4월	108.0	Index	108.5
5월2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4월	-16.9	Net balance	-16.9
5월2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5월	0.8%	Percent	0.5%
5월2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4월	58.0	Index	57.1
5월2-4일	23:00	미국	총 자동차 판매	4월		Units	2.660M
5월3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3월		Percent	1.1%
5월3일	18:00	유로존	실업률	3월	6.8%	Percent	6.8%
5월3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3월		Percent	0.8%
5월3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3월	1.2%	Percent	-0.5%
5월4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3월	0.3%	Percent	0.3%
5월4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4월25일 주간		Index	343.1
5월4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동향	4월	370k	Person	455k
5월4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4월	59.0	Index	58.3
5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4월		Index (diffusion)	42.0
5월5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4월		Person	21.387k
5월5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25일 주간		Person	180k
5월5일	21:30	미국	노동비용 잠정치	1분기		Percent	0.9%
5월6일	08:30	일본	도쿄 CPI	4월		Percent	1.3%
5월6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4월	400k	Person	431k
5월6일	21:30	미국	실업률	4월	3.6%	Percent	3.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2일(월)

- ⊙ 휴장국가: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영국

5월3일(화)

- ⊙ 호주 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오후 1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로그룹 회의 참석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제너레이션 유로 스튜던츠 어워드 참석 (오후 10시)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4일까지)
- ⊙ 휴장국가: 중국, 일본, 싱가포르

5월4일(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행·기자회견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5일 오전 3시)·기자회견
- ⊙ 휴장국가: 중국, 일본

5월5일(목)

- ⊙ 영란은행, 금리결정·통화정책회의록 발행 (오후 8시)
- ⊙ 휴장국가: 일본

5월6일(금)

- ⊙ 호주 중앙은행(RBA), 통화정책 성명 발표 (오전 10시3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컬럼비아대학교 환경 경제정책 센터 주최 행사서 개회사 (오후 10시1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조지아텍 석사 학위 수여식서 연설 (7일 오전 4시20분)
- ⊙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연설 (7일 오전 8시15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연준의 공격적 긴축 전망
- ⊙ 영란은행 네 차례 연속 금리 인상 전망
- ⊙ 끝 모를 달러지수 급등세
- ⊙ 중국 경제 둔화가 호주까지 영향
- ⊙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우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시장진단) - 달러 독주에 월간 달러/원 상승률 수년래 최대 전망... 5월은 다를까

서울, 4월2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최근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독주 체제가 강화되면서 4월 달러/원 승률은 수년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원 환율은 전날 1,274원선까지 올라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오후 1시 32분) 월간 달러/원 상승률은 약 4.5%로 지난 2016년 5월(4.6%), 2015년 7월(4.9%)과 비슷한 수준이다.

장 후반 시장 여건에 따라 달러/원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다면 월간 달러/원 상승률은 2011년 9월 (10.4%) 이후 최대가 될 수도 있다.

2016년 5월은 브렉시트, 2015년 7월은 중국 금융시장 불안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시사 등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때다. 2011년 9월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졌던 시기다.

간밤 달러지수는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미국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통화긴축을 선포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로존 경기 침체,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경기둔화 우려 등 여러 악재들이 한꺼번에 맞물려 강달러를 부추겼다.

또한 미국과는 정반대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행의 정책 기조 지속 의지 표명에 따른 엔저 역시 강달러의 주된 재료다.

4월 한 달간 달러지수는 약 5.3% 상승했다. 역외 달러/위안 상승률은 약 5%다. 이를 감안하면 달러/원은 대외 상황 따라 보폭을 맞춘 것으로도 풀이된다.

▲ 5월 달러/원, "차익실현 vs 더 간다"

달러/원 환율이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당시 수준으로 치솟고 월간 상승폭도 수년래 최대치로 확대됐지만, 글로벌 달러 여건을 고려하면 현재 달러/원 시장의 여건을 일방적으로 우려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자연스럽게 글로벌 달러 움직임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되며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원 환율이 '빅 피겨'인 1,300원을 향해 너무 빠르게 전진할 경우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달러/원 1,300원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주했던 레벨이기 때문이다.

최근 환율이 급하게 우상향 하기는 했지만 현시점에서 시장참가자들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5월 연준 회의를 전후해 시장 모멘텀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 대응 템포가 느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연준이 4월 중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지만, 5월 회의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A 은행 외환딜러는 "연준이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에 5월 연준 회의가 불확실성 해소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딜러는 "연준 긴축의 시장 반영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이 조금 뒤늦게 이를 반영한 게 아닌가 한다. 이후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환율 급등으로 한국은행의 5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금리 결정 요인으로 환율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외환수급 사정의 변화도 관건이다. 5월엔 배당 역송금 수요 같은 일시적인 수급이 빠지면서 4월보다는 달러 수요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확대, 예상보다 더 매파적일 수 있는 연준 행보, 중국 경기둔화와 위안 절하 압력 등 산적한 리스크 요인들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C 은행 외환딜러는 "코로나 사태로 환율이 급등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그때처럼 정책 대응을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환율의 빠른 되돌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 "큰 틀에서 글로벌 대외 여건이 선회하지 않으면 원화 약세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편집 이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2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55.9	-1.3%	-5.3%	-8.6%	유로	1.0542	-2.3%	-7.3%	-6.9%
100엔 대비	973.1	-0.6%	6.1%	+1.8%	엔	129.85	-1.0%	-11.4%	-10.3%
유로 대비	1,332.0	0.8%	1.5%	-1.9%	위안	6.6090	-1.6%	-3.8%	+2.7%
위안 대비	191.20	0.1%	-2.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2,977.21	-2.5%	-9.2%	+18.7%
코스피	2,695.05	-0.4%	-9.5%	+3.6%	나스닥	12,334.64	-3.9%	-21.2%	+21.4%
코스닥	904.75	-2.0%	-12.5%	+6.8%	S&P500	4,131.93	-3.3%	-13.3%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59.65	0.1%	-11.1%	-4.9%
국고채 3Y	2.958%	-1.3bp	116.0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172%	-4.7bp	116.1bp	+67.6bp	미국채 2Y	2.730%	5.0bp	200.0bp	+61.0bp
국고채10Y	3.242%	-7.2bp	99.2bp	+53.7bp	미국채 10Y	2.940%	4.0bp	143.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04.11	2.3%	38.0%	+55.8%	한국 5Y	40.2bp	6.8bp	18.1bp	-0.7bp
금(현물)	1,896.83	-1.8%	3.7%	-3.6%	일본 5Y	18.7bp	0.6bp	1.0bp	+2.1bp
TR상품지수	4,007.88	0.6%	20.0%	+24.6%	중국 5Y	79.2bp	9.0bp	38.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